

#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상담자 발달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역전이 관리 능력의 매개효과

## Th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s Adult Attachment and Development Levels of Counselors

정재선, 홍혜영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Jae-Sun Jeong(jaesi35@naver.com), Hye-Young Hong(hyhong@mju.ac.kr)

### 요약

본 연구는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상담자 발달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 사례 당 5회기 이상 언어적 상담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 3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 기능을 이용하여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1과 AMOS 21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구성하여 타당성과 적합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역전이 관리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둘째,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역전이 관리 능력을 통하여 상담자 발달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p < .05$ ). 셋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이중매개를 통하여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p < .001$ ).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성인애착 | 자아탄력성 | 역전이 관리 능력 | 상담자 발달수준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s adult attachment and development levels of counselors. For this purpose, 389 counselors who conducted more than 5 times of verbal counseling per case were surveyed for 3 weeks using the online questionnaire fun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 and AMOS 21,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and constructe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nd to verify validity, fitness, and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unselor's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had indirect effects on the ability to manage countertransference through the medium of ego-resilience( $p < .001$ ). Second, counselor's attachment avoidance had an indirect effect on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 through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p < .05$ ). Third, it was confirmed that counselor's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had an effect on counselor's development level through double mediation of ego-resilience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p < .001$ ).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 keyword : | Adult Attachment | Ego-Resilience |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 Development Levels of Counselors |

접수일자 : 2021년 10월 25일  
수정일자 : 2021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 2021년 11월 23일  
교신저자 : 홍혜영, e-mail : hyhong@mju.ac.kr

## 1. 서론

최근 들어 심리상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1-3]. 또한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상담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4].

상담자는 자신이 도구가 되어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5]. 그렇기에 상담의 효과적인 진행과 더불어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상담자의 발달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주요한 주제이다 [1]. 이와 함께, 자신의 발달수준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의 정신건강에도 유익하다[6].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동향 및 메타분석[1][2][7][8]으로도 정리되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담자 발달연구 초기인 1990년대 후반에는 상담자 발달 평가 기준 마련과 함께 발달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상담자의 전문성 영역별로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 확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발달수준과 다양한 성과 변인 간의 관계 연구들, 상담 분야별 상담자의 발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

상담자 발달수준은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상담실습 및 슈퍼비전에서의 교육내용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6], 그동안은 주로 발달 단계별 특성과 슈퍼비전 [1], 슈퍼비전에서 다루는 교육내용과 상담기술[7]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았다. 이는 상담자 양성과 훈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담자 발달단계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중요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의 상담자가 배출되고 있는 현재는, 신규 상담자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과 인간적 자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문주, 조한익[1]은 메타분석 연구에서 상담자 발달요인은 애착, 역전이 활용, 탄력성 등의 상담자 요인과 가장 큰 상관을 나타냈음을 확인했다.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 정서적 영역과 관계적 영역[8], 인성적 자질의 발달[7]의

중요성을 밝혔고, 상담자의 통합적 발달을 위한 연구가 필요[9]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 다양한 변인 탐색과 관계를 확인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변인 간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3]과 정서적 요인[2]에 해당하는 성인애착변인을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자의 성인애착 특성은 상담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내담자가 상담자와 안정된 애착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수용하는 고통을 견뎌내는 교정적 정서체험을 통해 새로운 조망을 갖게 할 수 있다[10]. Brennan, Clark와 Shaver[11]는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의 두 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Kobak와 Sceery[12]에 의하면 애착불안 유형은 애착경험을 일관되게 통합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충동적이고 무력하여,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애착회피 유형은 애착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어렵거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고 분노나 고통에 관한 정서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12].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발달수준을 높일 수 있고[9],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을 통해서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에 영향[13]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성인애착의 하위 요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그 특성이 뚜렷하여 변인에 따라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13][14], 상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15]함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다[1][2].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을 느끼지 않으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16].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현실통제력과 자존감, 사회적 유능감이 높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17]. 상담자는 상담 중에 고도의 집중력, 인내력,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하므로, 자아탄력성은 상담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자신감, 대인관계 효용성, 낙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 요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16]는 연구, 그리고 마음챙김

이 초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18]과 반추적 반응 양식이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4]에서 각각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만이 확인되었다.

한편, 역전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상담자의 감정, 생각, 태도를 말하며[19], 역전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을 역전이 관리 능력이라고 한다[20]. 상담자는 자신의 역전이 반응으로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19], 역전이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활용하여 상담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그러나 불안정 애착 성향의 상담자는 애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역전이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10]. 여러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상담자 발달 관련 요인과 역전이 관리 능력은 큰 상관관계 크기를 나타냈고[11][7][21], 성인애착과도 중간 효과 크기[21]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22][23], 상담자의 애착불안, 애착회피 모두와 소진의 관계[24], 긍정적인 원가족 경험과 상담자 발달수준의 관계[25]에서 각각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자의 성인애착은 상담자의 역전이에 영향을 주며[21], 상담자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역전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역전이 관리에 도움이 된다[26]고 한다. 한편, 조화진, 김민정[15]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공감의 관계에서 역전이 관리 능력이 부분 매개하지만, 애착회피는 역전이 관리 능력, 공감 모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능력이 좋을수록 자신의 애착문제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아져 내담자의 전이에 좌우되지 않고 상담을 유능하게 진행할 수 있음[21]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애착불안,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아동상담자 대상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자신감은 역전이 관리 능력의 모든 하위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효율성은 불안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놀이치료자 대상 연구에서는 자아탄

력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자신감이 역전이 관리 능력의 하위 요인인 불안관리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28].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역전이 관리 능력의 하위 요인인 공감능력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고[29], 상담자의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역전이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30]. 최근에는 성인애착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31-33]를 살펴본 연구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연구대상을 심리상담자[32], 음악치료사[31], 초보 상담자[33]로 구분하였으나 상담자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상담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담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상담자 발달수준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 변인과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자의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분하고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독립변인이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매개로 상담자 발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과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첫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역전이 관리 능력을 매개로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은 이중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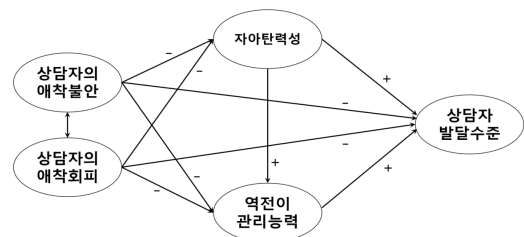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4세(중학교 1학년) 이상의 내담자에게 한 사례 당 5회기 이상 언어적 상담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5회기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은, 상담 초기에는 역전이 관리 및 활용이 어려워 [34], 어느 정도 회기가 진행된 후에야 상담자가 역전을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5].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3주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기능을 이용한 자기보고식 응답 방식으로, 실시에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상담 관련 학회의 홍보게시판 등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405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답하였고, 응답이 비일관적이거나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총 389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여성 355명(91.3%), 남성 34명(8.7%)이었으며, 연령은 26세부터 63세까지로 전체 평균연령은 44.5세(SD= 11.11)였다. 최종학력은 대졸부터 박사졸업까지 다양했으며, 석사졸업이 255명(65.6%)으로 가장 많았다. 취득한 자격증은 상담 관련 1급 자격증(상담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0명(15.4%), 2급 자격증(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은 273명(70.2%), 기타(청소년상담사 3급 및 그 외 민간자격증) 19명(4.9%)이며, 자격증 없음은 37명(9.5%)이었다. 상담경력은 1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분포했으며, 1년 이상 4년 미만이 161명(41.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34	8.7
	여성	355	91.3
연령	20대	25	6.4
	30대	170	43.7
	40대	129	33.2
	50대	56	14.4
	60대	9	2.3
최종학력	대졸	5	1.3
	석사과정	23	5.9
	석사수로	12	3.1
	석사졸업	255	65.6
	박사과정	37	9.5
	박사수로	32	8.2
	박사졸업	25	6.4
상담관련 자격증	1급 자격증	60	15.4
	2급 자격증	273	70.2
	기타	19	4.9
	없음	37	9.5
상담경력	1년 미만	59	15.2
	1년 이상 4년 미만	161	41.4
	4년 이상 7년 미만	90	23.1
	7년 이상 10년 미만	48	12.3
	10년 이상 20년 미만	28	7.2
	20년 이상	3	0.8

### 2. 측정도구

#### 2.1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상담자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35]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개발한 ECR-R을 김성현[3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의 한국어판(ECRR-K)을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불안 요인(18문항)과 회피 요인(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의 애착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현[36]의 연구에서 문항6과 문항22의 내용 번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수용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번역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문항6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를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만 내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 같다.”로 변경하였다. 문항22는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를 “사람들과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로 수정하였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단일요인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각각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만들었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각 문항을 요인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모든 문항꾸러미가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가지도록 문항들을 묶는 방식[37]을 사용하여 애착불안(애착불안1, 애착불안2, 애착불안3), 애착회피(애착회피1, 애착회피2, 애착회피3)가 각각 3개의 하위 요인이 되도록 재구성하였다. 김성현[3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불안 .89, 회피 .85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불안 .93, 회피 .90 이었다.

## 2.2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홍섭[38]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상담대화기술(10문항), 사례이해(11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상담계획(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홍섭, 이영희[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전체 .92이고 각 하위 요인별로는 상담대화기술 .83, 사례이해 .84, 알아차리기 .86, 상담계획 .85, 인간적-윤리적 태도 .78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97, 상담대화기술 .89, 사례이해 .91, 알아차리기 .90, 상담계획 .91, 인간적-윤리적 태도 .83 이었다.

## 2.3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K)

상담자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lohnen [39]이 개발한 ERK를 박현진[4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자신감(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8문항), 낙관적 태도(10문항), 분노조절(2문항)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현진[4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92, 자신감 .85, 대인관계 효율성 .84, 낙관적 태도 .82, 분노조절 .57 이었다.

## 2.4 역전이 관리 능력 척도(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Van Wagoner 외[20]가 개발한 CFI 질문지를 장세미[4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자기 통찰(11문항), 자기 통합(11문항), 공감능력(11문항), 불안 관리(8문항), 개념화 기술(9문항)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장세미[4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전체 .93이고 각 하위 요인별로는 자기 통찰 .67, 자기 통합 .80, 공감능력 .84, 불안관리 .76, 개념화 기술 .78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95, 자기 통찰 .72, 자기 통합 .83, 공감능력 .86, 불안관리 .84, 개념화 기술 .81 이었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과 AMOS 2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모형 평가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변량 정규성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왜도, 첨도, 다변량 첨도(Multivariate kurtosis)의 값으로 정규분포 여부를 알 수 있어[42] 이를 기준으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적합도 지수를 살펴보고,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재추출하는 표본의 수(Number of bootstrap samples)는 5,000개, 신뢰구간(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은 95%로 설정하였다. 또한,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배병렬[43]의 제안에 따라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다변량 정규성 점검

측정모형의 다변량 척도를 의미하는 Multivariate 값은 31.221, C.R. 값은 10.379로 나타났다. 이는 0.05 유의수준에서 ±1.96, 0.01 유의수준에서 ±2.58 을 초과하므로 분포가 정규성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다[44].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모델적합도나 개별 모수의 유의성 검증 시에  $\chi^2$  값이 과대 추정되거나 표준오차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였다[43].

####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df)=615.601(160)$ ,  $p\text{-value}=.000$ , RMSEA=.086, CFI=.936, TLI=.924로 나타났다. CFI,

TLI가 .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RMSEA<.08이면 양호한 모형, RMSEA<.10이면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낸다[45]는 기준으로 볼 때, 측정모형은 보통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변인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화계수( $\beta$ ), 유의성(C.R.),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로 검증한다[41]. 표준화계수는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 AVE는 .5 이상, CR은 .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3]. AVE와 CR은 표준화계수를 이용한

$$AVE = \frac{\sum \lambda^2}{\sum \lambda^2 + \sum (1 - \lambda^2)}, CR = \frac{(\sum \lambda)^2}{(\sum \lambda)^2 + \sum (1 - \lambda^2)}$$

으로 산출하였다[43].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측정변인들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898~.944, 애착회피는 .877~.901, 상담자 발달수준은 .810~.915, 자아탄력성은 .772~.896, 역전이 관리 능력은 .701~.876로 나타났다.

표 2.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beta$ )	표준오차 (S.E.)	유의성 (C.R.)	AVE	개념 신뢰도
애착불안	애착불안1	1.000	.898			.835	.938
	애착불안2	1.091	.944	.036	29.927***		
	애착불안3	.965	.898	.036	26.981***		
애착회피	애착회피1	1.000	.877			.774	.911
	애착회피2	.949	.901	.040	23.629***		
	애착회피3	.878	.860	.040	22.163***		
상담자 발달수준	상담대화기술	1.000	.915			.808	.954
	사례이해	1.040	.941	.031	33.532***		
	알아차리기	1.085	.923	.034	31.590***		
	상담계획	1.069	.899	.037	29.213***		
	인간적·윤리적태도	.799	.810	.035	22.697***		
자아탄력성	자신감	1.000	.896			.565	.858
	대인관계효율성	1.032	.812	.052	19.867***		
	낙관적태도	.759	.772	.041	18.381***		
	분노조절	.502	.330	.078	6.421***		
역전이 관리 능력	자기통찰	1.000	.701			.684	.915
	자기통합	1.499	.876	.091	16.406***		
	공감능력	1.788	.907	.126	14.242***		
	불안관리	1.703	.756	.101	16.937***		
	개념회기술	1.637	.876	.100	16.403***		

N=389, \*\*\* $p < .001$

관리 능력은 .701~.907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C.R. > 1.965$ 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만족하였다. 다만,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분노조절은  $\beta = .330$ 으로 .5미만이나, 자아탄력성의 AVE는 .565, 개념 신뢰도는 .858로 유의하기 때문에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서로 다른 잠재변인 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구성개념 간 AVE와 상관관계의 제곱 값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AVE > \phi^2$ 으로 평가한다[42]. 구성개념 간 상관행렬은 [표 3]과 같고, AVE는 가장 작은 것만 검토한다[43]. [표 2]에서 AVE가 가장 작은 것은 자아탄력성의 .565이다. 자아탄력성과 애착불안의 상관관계 제곱 값은 .510, 애착회피의 상관관계 제곱 값은 .314, 상담자 발달수준의 상관관계 제곱 값은 .257, 역전이 관리 능력의 상관관계 제곱 값은 .335이다. 따라서 모두  $AVE > \phi^2$ 을 만족하므로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은 가설의 개념 간 관계의 방향과 자료의 관계의 방향이 일치하는가로 확인할 수 있다[43]. [그림 1]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가설의 개념 간 관계의 방향과 [표 3]의 구성개념 간 상관행렬의 방향은 일치하므로 범칙타당성이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분노조절은  $\beta = .330$ 이다. 이를 분석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낮은 표준화계수만을 기준으로 항목을 제거하면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2]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 변인의 개념 신뢰도가 .858로 기준값인 .7보다 높고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및 범칙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모든 측정변인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 구성개념 간 상관행렬

잠재변인	1	2	3	4	5
1.애착불안	-				
2.애착회피	.408***	-			
3.상담자 발달수준	-.344***	-.337***	-		
4.자아탄력성	-.714***	-.560***	.507***	-	
5.역전이 관리 능력	-.379***	-.427***	.851***	.579***	-
M	2.919	3.287	3.194	3.816	3.800
SD	.951	.842	.430	.557	.421

N=389, \*\*\* $p < .001$

### 3. 최종모형 선정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아탄력성, 역전이 관리 능력을 통하여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은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냈다([표 4] 참조). 이를 개선하고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역전이 관리 능력 변인의 불안 관리와 자기 통합의 오차항(M.I.=42.977), 불안관리와 자기 통합의 오차항(M.I.=22.285) 각각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분산을 설정하였을 때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chi^2$ 의 차이가 74.201로 유의한 수준이고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경로의 변화는 없으므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p	RMSEA (90% CI)	CFI	TLI
연구 모형	615.601 (160)	.000	.086 (.079~.093)	.936	.924
수정 모형	541.400 (158)	.000	.079 (.072~.086)	.946	.936
$\Delta\chi^2$ ( $\Delta df$ )	74.201 (2)				

최종모형에서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으며, 이를 반영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상담자 애착불안은 자아탄력성( $\beta = -.582$ ,  $p < .001$ )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상담자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 $\beta = -.323$ ,  $p < .001$ )과 역전이 관리 능력( $\beta = -.155$ ,  $p < .05$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역전이 관리 능력( $\beta = .540$ ,  $p < .001$ )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역전이 관리 능력은 상담자 발달수준( $\beta = .826$ ,  $p < .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은 종속변인이 그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양을 의미한다[42]. 이에 따르면 상담자 발달수준은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아탄력성, 역전이 관리 능력에 의해 72%가 설명되고 있어 상담자 발달수준은 각 변인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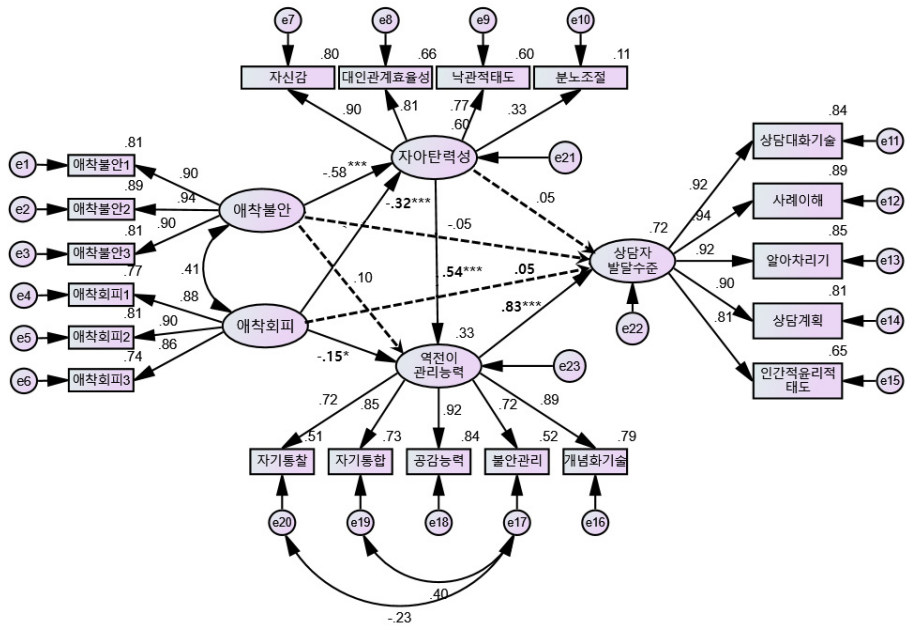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임. N=389, \* $p < .05$ , \*\*\* $p < .001$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애착불안→자아탄력성	-.396	-.582	.032	-12.351***
애착불안→역전이 관리 능력	.053	.101	.038	1.388
애착불안→상담자 발달수준	-.022	-.046	.024	-.911
애착회피→자아탄력성	-.256	-.323	.036	-7.052***
애착회피→역전이 관리 능력	-.095	-.155	.037	-2.564*
애착회피→상담자 발달수준	.028	.051	.023	1.229
자아탄력성→역전이 관리 능력	.419	.540	.070	5.970***
자아탄력성→상담자 발달수준	.032	.045	.045	.711
역전이 관리 능력→상담자 발달수준	.752	.826	.055	13.698***

주. B=비표준화계수,  $\beta$ =표준화계수, S.E.=표준오차, C.R.=유의성  
N=389, \* $p < .05$ , \*\*\* $p < .001$

#### 4. 매개효과 분석

상담자의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상담자 발달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간접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역전이 관리 능력( $\beta = -.314$ ,  $p < .001$ ), 애착불안→상담자 발달수준( $\beta = -.202$ ,  $p < .01$ ), 애착회피→역전이 관리 능력( $\beta = -.174$ ,  $p < .001$ ), 애착

표 6.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애착불안→자아탄력성	-.582***		-.582***
애착불안→역전이 관리 능력	.101	-.314***	-.213***
애착불안→상담자 발달수준	-.046	-.202**	-.248***
애착회피→자아탄력성	-.323***		-.323***
애착회피→역전이 관리 능력	-.155*	-.174***	-.329***
애착회피→상담자 발달수준	.051	-.287***	-.236***
자아탄력성→역전이 관리 능력	.540***		.540***
자아탄력성→상담자 발달수준	.045	.446***	.491***
역전이 관리 능력→상담자 발달수준	.826***		.826***

N=389, \* $p < .05$ , \*\* $p < .01$ , \*\*\* $p < .001$



회피→상담자 발달수준( $\beta=-.287, p<.001$ ), 자아탄력성→상담자 발달수준( $\beta=.446, p<.001$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MOS에서 보고되는 간접효과는 총간접효과이다. 그러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별매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팬텀변수를 만들어 추정해야 하며, AMOS에서 표준화계수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표준화계수(B)를 제시한다[43]. 팬텀변수를 통한 개별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팬텀변수를 통한 개별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95% 신뢰구간	
		Lower	Upper
X1 → M1 → Y	-.013	-.054	.026
X1 → M2 → Y	.040	-.022	.104
X2 → M1 → Y	-.008	-.038	.017
X2 → M2 → Y	-.071*	-.144	-.005
X1 → M1 → M2 → Y	-.124***	-.180	-.079
X2 → M1 → M2 → Y	-.081***	-.129	-.046

주. B=비표준화계수, X1=애착불안, X2=애착회피, M1=자아탄력성,

M2=역전이 관리 능력, Y=상담자 발달수준

N=389, \* $p<.05$ , \*\*\* $p<.001$

확인 결과, 애착회피→역전이 관리 능력→상담자 발달수준( $B=-.071, p<.05$ ), 애착불안→자아탄력성→역전이 관리 능력→상담자 발달수준( $B=-.124, p<.001$ ), 애착회피→자아탄력성→역전이 관리 능력→상담자 발달수준( $B=-.081, p<.001$ )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특히,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상담자 발달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역전이 관리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강할수록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역전이 관리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 또는 회피애착의 상담자는 상담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역전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32]를 지지한다. 아울러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한다는 연구들[31][33]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애착불안은 자아탄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만, 애착회피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16]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역전이 관리 능력을 통하여 상담자 발달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애착회피가 높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거리를 두며 상담과정의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것으로 대처[32]한다. 그러다 보니 역전이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발휘가 원활하지 않아 상담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애착회피를 보이는 상담자는 감정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인지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보다 능숙하여 정서적 자각과 민감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4]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역전이 관리 능력은 상담자의 애착회피와 상담자 발달수준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이 확인되었다. 지속적인 상담자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전이 문제를 반드시 관리해야 하며[1], 역전이 반응을 스스로 인식하여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19].

셋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이중매개를 통하여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정도가 약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잘 발휘되고, 역전이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상담자 발달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담자의 성인애착은 상담자 발달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했다. 그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상담자는 자신의 내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다루는 훈련을 계속 한다[14].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고등 교육 과정을 거쳐 실제 상담을 실시한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성인애착 특

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상담자 발달을 위하여 상담자의 성인애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자 수련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의 전공수업 뿐만 아니라 인턴십을 비롯한 수련과정 및 각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상담 실무를 경험하는 등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애착 성향을 점검하고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역전이를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담자 발달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애착불안 유형은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를 높일 수 있도록[16] 유의해야 한다. 역전이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자신감[27]을 기르도록 해야 하겠다. 애착회피 유형의 경우,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의 기저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14]. 아울러, 상담자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상담자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교육분석, 상담 사례에 대해 슈퍼바이저에게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슈퍼비전을 통해서도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도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상담자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인애착은 불안과 회피라는 뚜렷한 특성을 가진 하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13],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2개 변인으로 나누어 각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담자 애착불안은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이중매개를 통해서만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주지만, 상담자 애착회피는 이중매개 뿐만 아니라 역전이 관리 능력을 통해서도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불안애착보다 회피애착이 역전이 관리 능력에 더 큰 영향을 준다[21]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불안과 회피는 그 특성이 뚜렷하여 변인에 따라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13][14], 상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

리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15]는 연구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애착회피 상담자의 거리두기 전략 사용과 경계에 민감한 특성[14]은 역전이 반응의 인식을 방해하고 역전이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슈퍼비전 시에, 무뎠하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거나, 좀 더 정서적인 개입을 요구받기도 한다[14].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애착회피 상담자는 역전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상담자 발달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애착불안 상담자는 타인의 거절과 버림받음에 민감[16]하기 때문에, 정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면이 있어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상담자 발달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상담자의 정서적, 인간적 자질과 관련한 변인들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상담자의 발달은 상담 분야 전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담 효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상담자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연구[9], 상담자의 정서 및 관계적인 면에서의 발달수준에 대한 관심[8],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일관적 특성과 비일관적 특성 확인[2], 상담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담자 변인 고찰[16]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언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통해 상담자 발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발달 연구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실제와 다르게 과장 또는 축소하여 응답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초보 상담자의 경우 상담과정에 대한 자신 없음을 낮은 점수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관리 능력의 구성개념 상관인 .851로 높아 두 구성개념이 유사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 발달수준의 설명력이 72%인 것에 비해 역전이 관리 능력의 설명력이 33%인 것을 보면 역전이 관리 능력 척도에 대한 응답이 실제의 역전이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

문을 가져볼 수도 있다. 또한, 원칙도인 CFI 질문지는 30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현대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변인 간의 영향이 선행연구와 상이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 발달수준으로 가는 직접 경로 [13], 애착불안이 역전이 관리능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 [15][22][24], 자아탄력성이 상담자 발달수준으로 가는 직접 경로 [18]는 선행연구에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에 응한 전체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교육 및 훈련의 정도나 경력 수준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상담경력과 자격증 등으로 상담자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1] 정문주, 조한익,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제17권, 제6호, pp.141-164, 2016.
- [2] 금명자, 정상화,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 동향,” 교육문화연구, 제27권, 제2호, pp.483-508, 2021.
- [3] 주은선, 박영주, “상담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및 상담성공에 영향을 주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게재 논문(1983-201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4권, 제2호, pp.453-484, 2015.
- [4] 여현주, “상담자의 반추적 반응양식과 발달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6권, 제1호, pp.291-296, 2021.
- [5] 임고운, 김지현,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제9권, 제3호, pp.987-1006, 2008.
- [6] 심홍섭, 이영희,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0권, 제1호, pp.1-28, 1998.
- [7] 유다솜, *상담자 발달과 역전이, 상담성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8] 최한나,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제6권, 제3호, pp.713-727, 2005.
- [9] 김애경, 김성봉, “상담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발달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제10권, 제2호, pp.137-159, 2020.
- [10] 문형춘, “성인애착 특성과 상담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3호, pp.609-634, 2007.
- [11] K. A. Brennan, C. L. Clark, and P. R. Shave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Guilford Press, 1998.
- [12] R. R. Kobak, and A. Sceery,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Vol.59, No.1, pp. 135-146, 1988.
- [13] 나현미, 정남운, “상담자의 성인애착,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과 상담 초기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제2호, pp.339-369, 2016.
- [14] 권경인, 양정연, “회피애착형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제16권, 제3호, pp.25-49, 2015.
- [15] 조화진, 김민정,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 역전이 관리능력과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9권, 제1호, pp.41-64, 2018.
- [16] 박현주, 김봉환, “상담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1호, pp.33-52, 2010.
- [17] E. L. Cowen, P. A. Wyman, W. C. Work, and G. R. Parker, “The Rochester Child Resilience Project: Overview and summary of first year finding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Vol.2, No.2, pp.193-212, 1990.
- [18] 우미선, *마인드풀니스와 초보 상담자 발달 수준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9] 최명식, “역전이 개념의 변천, 분류 및 치료적 활용에 대한 이해,” *인간이해*, 제24권, pp.1-21, 2003.
- [20] S. L. Van Wagoner, C. J. Gelso, J. A. Hayes, and R. A. Diemer,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Vol.28, No.3, pp.411-421, 1991.

- [21] 박진술, 이영애, “상담자 역전이관리능력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23권, 제2호, pp.93-112, 2020.
- [22] 황찬, *청소년 상담자의 애착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3] 윤희섭, 정현희,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공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3권, 제5호, pp.2463-2482, 2012.
- [24] 국혜진, *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5] 이상리, 최운미, 신효정, “긍정적 원가족 경험, 자기 자각,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 발달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제23권, 제1호, pp.105-121, 2016.
- [26] 장동환, *상담자의 불안정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27] 김현주, 김광웅, “아동상담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역전이 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제10권, 제1호, pp.35-46, 2007.
- [28] 이정수, 양정화, “놀이치료사의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능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7-33, 2009.
- [29] 이경윤, *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30] 장유나, *상담자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31] 문고은, *음악치료사의 불안정 애착이 역전이 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32] 양효진, 손승희,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p.181-207, 2020.
- [33] 최아름, *초보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34] J. A. Hayes, J. R. Riker, and K. M. Ingram,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management in brief counseling: A field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Vol.7, No.2, pp.145-153, 1997.
- [35] R. C. Fraley, N. G. Waller, and K. A. Brennan,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No.2, pp.350-365, 2000.
- [36] 김성현,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7] 서영석,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4호, pp.1147-1168, 2010.
- [38] 심홍섭,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39]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5, pp.1067-1079, 1996.
- [40] 박현진,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41] 장세미,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 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42]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2012.
- [43] 배병렬,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2017.
- [44] P. J. Curran, S. G. West, and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pp.16-29, 1996.
- [45] 홍세희,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저 자 소 개

정 재 선(Jae-Sun Jeong)

정회원



- 2012년 2월 :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상담심리학석사)
- 2015년 3월 ~ 2018년 2월 : 구일고등학교 전문상담사
- 2019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박사과정

〈관심분야〉 : 정신건강, 적응, 애착, 대인관계, 상담자발달

홍 혜 영(Hye-Young Hong)

종신회원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적응, 대인관계, 성격, 상담자발달